

화엄종찰 위상 지키려 당시 트렌드 거부

이주민 연구원, 영주 부석사 조사자로서 밝혀

영주 부석사는 의상 대사가 676년 창건한 고찰이다. 이 곳 무량수전에 봉안된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좌상(국보 제45호)은 높이 278cm로 국내 현존하는 소조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기록에서 전란으로 소실돼 복원됐다고 전하는 부석사 본존불의 원형과 변화상을 고찰한 논문이 故 황수영 박사 이후 35년 만에 발표됐다.

이주민 미술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영주시청과 환경문화재보존이 펴낸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보존실시용역』에 기고논문 '부석사 소조아미타불좌상과 그 대좌에 관한 소고'를 게재했다.

이 연구원은 논문에서 부석사 본존불의 방형대좌와 수미단 등을 분석해 본존불의 원형을 추정했다.

부석사 본존불이 봉안된 수미단 안에는 불상의 하중을 받치고 있는 방형대좌(2.6*2.3m)가 있다. 그 바깥쪽으로 내측 수미단(3.6m*3.2m)이 있고 다시 0.8m 가량의 공간을 두고 현재 확인 가능한 외측 수미단(4.8m*4.3m)이 위치해 있다.

방형대좌는 소나무로 네 기둥을 삼고 안쪽에는 돌을 쌓은 후 나머지 공간은 기와 파편과 진흙을 사용해 공간이 매워져 있다. 표면은 호분이나 백토와 같은 백색 안료를 전체에 바른 다음 금을 덧칠했다. 대좌의 향 우측 모서리는 쌓여 있던 층전체가 무너져 내려 훼손 정도가 크다. 금니를 이용했던 채색도 박락이 심한 상태이다.

이주민 연구원은 옷칠을 한 외측 수미단 안쪽 바닥에서 발견된 2종의 녹유선에 주목했다. 녹유선은 통일신라시대 황실사찰 규모의 절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부석사

본존불이 7세기 조성됐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라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주민 연구원은 "크기와 성격이 다른 두 녹유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두차례 이상의 불사가 진행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간행된 『조선고적도보』의 자료를 보면 부석사 무량수전 법당에는 녹유전이 깔려 있었다.

故 황수영 박사 이후 첫 논문 발표 국내 최대 소조불 부석사 여래좌상 "비로자나불 아님 아미타불 봉안은 화엄종찰로서의 자부심 지킨 것"

이 연구원은 "현재 목재로 마루를 놓은 것과는 상이한 모습이지만, 『조선고적도보』를 통해 본 20세기 초 부석사 본존불의 모습은 개금보수를 했던 외에 수미단 모습이나 불상의 배치 등 봉안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 연구원은 부석사 불전의 바닥을 석조·전·목조마루의 3가지로 분류했다. 이 연구원은 "석재로 바닥을 이룬 석굴암, 갑산사 금당 등의 유구를 제외하고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전과 마루바닥은 한국건축 바닥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고구려 시기 것으로 출토된 문채전(文彩塼)이나 백제시기 문양전(文樣塼) 등이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 전바닥으로 계승돼 부석사 무량수전, 불정사 극락전 바닥으로 계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보 제45호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소조불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이다.

전바닥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무위사 극락전, 범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내측 수미단 하대 부재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반나무가 사용됐고, 그 외 부재는 소나무가 사용됐다.

이주민 연구원은 "내측 수미단 훼손 시기는 불분명하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파손이 돼 하대와 중대 일부만을 남기게 됐다. 상대를 뜯어낸 후에 외측 수미단을 만들 당시 내측 수미단을 임시로 이어 붙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측 수미단은 조사 결과, 불상의 하중을 받치고 있던 방형대좌 한쪽 모서리가 무너져 내려 대좌 안에 있던 층전체가 노출돼 있다.

이 연구원은 "1358년 부석사 본존불이



부석사 무량수전에 봉안된 소조여래좌상의 (왼쪽부터) 삼단방형대좌와 내측 수미단, 외측 수미단. 이주민 연구원은 대좌의 모습과 수미단의 훼손정도·조성시기 등에 주목해 부석사 본존불의 원형을 추적했다.

적벽에게 화를 당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그 전화가 방형대좌 훼손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민 연구원은 "1358년 왜구의 병화 이후 진각국사 원웅(1307~1382)에 의해 무량수전과 조사당 중건 등 대대적인 불사가 있었다. 본존불의 보수도 이 때 이뤄졌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외측수미단을 구성하는 보단·보막·홍살 등은 17세기 이후 수미단 상부까지가 엮였다"며 "본존불 조성 당시 외측수미단은 없었다. 보수 등을 하는 과정에서 17세기 외측수미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주민 연구원은 "부석사 본존불은 소나무판 위에서 소조불을 만들어 소나무판 채로 대좌 위에 봉안하고, 후대에 그 판을 외측 수미단과 연결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헌학적 고찰과 과학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부석사 본존불의 원형은 확연히 밝혀지지 못했다.

이주민 연구원은 "현재 남아있는 방형대좌는 채색도 많이 박락됐고 파손이 심해 본래 모습과는 많이 달라 원형을 추정하기



이주민 연구원은 대좌의 모습과 수미단의 훼손정도·조성시기 등에 주목해 부석사 본존불의 원형을 추적했다.

힘들다. 다만 목석출토 금동불좌상, 간송미술관 소장 금동삼존불상 등과의 비교를 통해 대체적인 윤곽만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석사 본존불은 턱에 살이 많고 전체적으로 풍만한 얼굴을 하고 있고 이마가 좁은 편이다. 두상을 촘촘히 메운 나발 가운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발들이 이마와 두피의 경계에 배열돼 있다.

이 연구원은 "경기도 충주리 소조불상 나발에서 볼듯이 고정시키기 위해 심을 박은 것과 점착제를 바른 것 등 두 종류의 나발이 발견됐다"며 "부석사 소조불상도 두가지의 나발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본존불의 왼쪽 귀구멍과 달리 오른쪽 귀구멍이 막힌 것은 개금당 당시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주민 연구원은 "부석사 본존불은 얼굴과 턱에 살이 많은 편이다. 이는 부석사가 위치한 영주 근방의 복지리 마애불이나 가흥리 본존불 상층에서 보이는 모습과 유사하다"며 "이는 부석사 무량수전 본존불이 제작됐던 7세기 당시의 원형을 되찾아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부석사 본존불과 석굴암 본



이주민 연구원은 대좌의 모습과 수미단의 훼손정도·조성시기 등에 주목해 부석사 본존불의 원형을 추적했다.

존불을 비교 고찰 했다. 부석사 본존불의 인상을 좌우하는 붉은 입술과 강한 눈썹선을 없애고 석굴암 본존불과 비교했을 때, 약간 눈꼬리가 올라간 눈, 도통한 입술, 좁은 콧날, 전체적으로 입속한 인상 등이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이주민 연구원은 "부석사 본존불이 7세기 조성됐다면 석굴암보다 선행하는 불상의 범본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부석사 본존불은 석굴암 본존불과 함께 중요한 불상의 모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부석사 본존불은 화엄종찰이라는 부석사의 위상 때문에 석굴암 본존불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인근 지역 사찰의 불상 조성에 범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연구원은 "신라시대 9세기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의 선풍적인 유행에도 불구하고 부석사에서는 일승의 아미타여래만을 봉안했다. 이는 새로운 조류를 따르지 않았던 화엄종찰로서의 부석사의 정통성과 보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부석사가 의상의 종지를 받든데 있어 충실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통합종단50주년 출범 기념 학술행사

불교사회학 · 동국대 종합학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학술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4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50년의 성찰과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조계종단 차원에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 중인 기념사업의 일환이다.

행사에서는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와 통합종단 출범의 의의'를, 법안 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이 '조계종 종헌중범의 형성과 변천'을, 영담 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이 '조계종의 교구제도와 사찰관리체계'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허정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김상경·심익선 교수(동국대)가 참여한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각각의 발제를 통해 17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가 근대 이후 조선불교조계종을 거쳐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이름의 통합종단으로 출범한 취지와 의의를 밝히

고, 조계종 종헌중범 및 교구제도와 사찰관리체계의 현황과 나아갈 바에 대해 4부대중 모두가 참여하는 고인과 모색의 장을 펼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7월에도 또 한 차례의 기념세미나 자리를 열고 대한불교조계종 50년의 활동과 역할을 조망하고, 21세기 한국과 세계 속 조계종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국대 종합학연구소(소장 중호)는 28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와 조계종'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황인규 교수(동국대)가 '전근대기의 조계종(신라-조선후기)', 김광식

동국대 연구초빙교수가 '근대기의 조계종'(1941~1962년)을, 법진 스님(前 해인사 승가대학장)이 '조계종의 이념, 그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한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통합종단 50년의 조계종'을 통해 포교, 역경, 도제 양성 등 종단의 물량적 변화에 대해 조명한다.

김경진 위탁대 교수는 '통합종단 50년의 조계종'을 통해 민중불교운동, 개혁운동, 1994년 종단개혁에 대한 긍정·부정적인 면을 고찰한다.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조계종의 이념, 그 내용과 특성'에서 조계종 종헌에 나타난 이념을 학술적으로 분석한다. 조동섭 기자

불교음악의 발전 방안 모색

계간 '불교평론' 4월 열린논단

불교음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할 때 대중이 그것을 함승(Samgati)하면서 생긴 울조가 그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오라클 성격에 대한 기술적 규제에 의해 불교음악은 대중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전법교회의 수단으로서 음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용성 스님 등 선각적 고승에 의해 현대적 찬불가 제작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불교음악의 현주소를 짚어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린다. 계간 불교평론(주간 흥사성)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4월 19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토론광장 <열린논단> 4월 모임을 개최한다. '현대불교음악의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윤소희 박사(동국대 예술문화대학원 외래교수)가 발제한다. 윤 박사는 발제를 통해 >찬불이라는 신앙적 측면의 불교음악 >치유와 명상적 측면의 불교음악 >대중음악으로서의 불교음악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02)739-5781 조동섭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학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뿔,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4월 30일까지

◆개강일시 : 2012년 5월 1일(화요일)개강. **매주(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청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21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크신 분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21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공모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학술상	시 상 내 용	인원	상금
학술상	불교와 불교학 발전에 뛰어난 학술연구저서(역주 포함)를 출간하신 분 심사대상 : 2011년 7월 ~ 2012년 6월까지 최근1년내 출간된 학술연구저서	2명	각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분(시화 부문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하신 분 심사대상 : 최근 2년이내의 실적물		

2. 시상일
2012년 9월 24일 월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명함판사진 2매)	1부
공적서 및 증명자료	1부

4. 접수처 및 접수방법

①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우 137-877)

② 접수마감 : 2012년 6월 30일

③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 E-mail 접수 : runner333kr@naver.com

5. 수상자 발표
2012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 fax 02)521-99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